

Linked
Involved
Connected
Banded
Bonded

2021
10.14 (Thu)
14:00-17:00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회복의 키워드

Program

- 1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 2 김미남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미술관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연성 기르기
- 3 최아름 (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 4 조주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 5 김가현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 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

DAEGUARTMUSEUM

발표자 소개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 한국문화교육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독일 뮌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uenster)에서 교육학(성인교육학)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립미술관 등의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습지도자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창군 등 평생학습도시 계획 연구책임자로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위기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박물관, 미래 그리고 교육 - 시각적 공간에서의 학습에서 연행적 공간에서의 학습으로」, 「교육적 범주로서의 <전시행위>에 대한 이론적 탐구」,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술관 전시내러티브 탐구」등 다수 연구 및 집필을 하였다.

Link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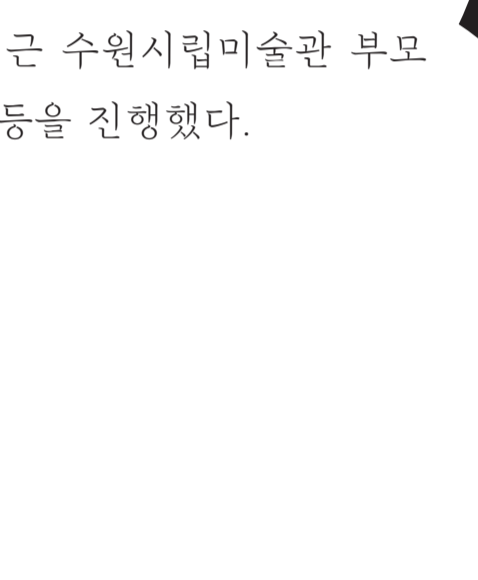
발제내용 소개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현재의 뮤지엄의 조직문화는 교육전문가를 부수적인 인력으로 또는 비정규직 및 계약직 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내용전문가 및 전시전문가들이 뮤지엄의 교육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시민을 위한 뮤지엄의 경우 시민교육적 목적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고 할 때 어떠한 사물과 물질을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수집할 것인지, 어떠한 주제를 전시오브제를 통해 시민관람객과 상호소통, 상호작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전시기반 속에 어떠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교육적 목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뮤지엄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Involved

발표자 소개 김미남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미술교육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경험이 있으며, 박사학위 후에는 미국 캔자스 Emporia State University에서 미술교육과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술교육 극한의 재고와 그 확장 가능성 실천에 대한 탐구: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의 이해와 적용」, 「아동의 미술 정의에 내재된 담론분석: 미술교육 방향의 재고」, 「Korean children's self-initiated learning and expression through manwha」 등 국내외 학술논문과 『한국미술교육의 이론과 쟁점』(2021), 『미술교육의 기초』(2016) 등의 저서가 있다. 최근 수원시립미술관 부모 대상 온라인 특강 <어린이가 미술관에 가야 하는 이유> 등을 진행했다.

Connected

발제내용 소개

미술관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연성 기르기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관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미술관에 입장한 후에도 관람객은 끊임없이 '타자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관람객의 '타자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문화 기획자 로트만(Lo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탐색해본다.

Banded

발표자 소개 최아름 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고려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으며, TIDE Institute 창업기획팀에 재직하였고 현재 주식회사 Dot의 글로벌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Dot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대중교통 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배리어 프리(무장애) 디자인의 확장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배리어 프리 박물관 관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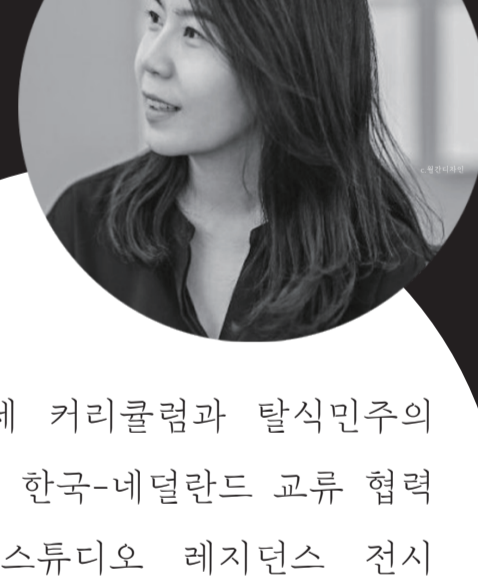
Bonded

발제내용 소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미술관의 존재의 목적은 모두가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미술관의 형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모두"를 포용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크고 작은 변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미술관이 가지는 공간적 포용성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발표자 소개 조주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KAIST 인류세연구센터 참여연구원으로 다학제적 인류세 커리큘럼과 탈식민주의 관점의 역사 되쓰기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코 총괄기획자, 2021 ACC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전시 총괄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였고, 연극, 퍼포먼스, 포스트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관객 참여, 공동체, 아카이브 아트 분야의 새로운 예술 형식을 모색한 전시기획을 해왔다. 최근 기획전시로는 《1920 기억극장: 황금광시대》, 《세일꾼 1948-2020》, 《Dear Amazon: 인류세 2019-2021》,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do it 2017, 서울》 등이 있다. 「뉴노멀 뮤지엄: 온라인 플랫폼과 관객 참여」(2021)의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홍콩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2011, 미메시스), 『한 권으로 읽는 현대미술』(2017, 마로니에북스) 등을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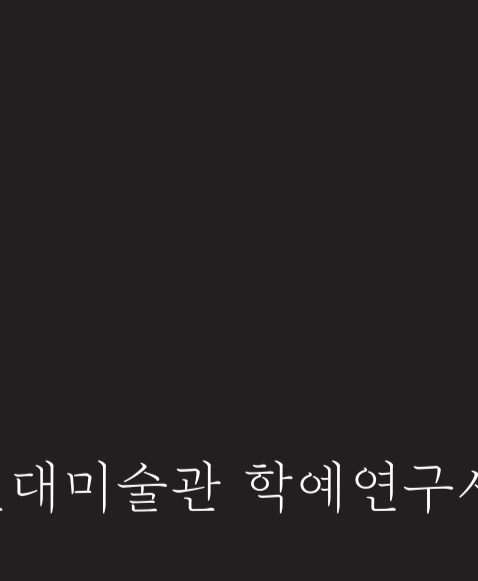
Banded

발제내용 소개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코로나 이후 미술계는 변화한 예술 환경에 따른 수많은 담론 생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시에서는 신체적인 감각을 동원해 예술작품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 온라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패턴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가려졌던 비하인드 씬이 활짝 공개되며 작가와 큐레이터의 아이디어, '예술적 사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사라진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삶이 일상화되면 따라,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의 경계나 위계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 전시는 어떠한 새로운 예술 양식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소개 김가현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동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으며, 2020년까지 겸임교수로서 예술사 강의를 진행했다. 2005년부터 대안공간 scene, 미술공간현에서 크고 작은 독립전시를 기획했으며 (낙산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토고미 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문화예술전문인력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전시관람 방법의 변화와 전환점을 인식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MZ세대를 겨냥한 전시인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를 기획했다.

Banded

발제내용 소개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 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

미술관에서의 방탈출게임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다양한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왔다. 부산현대미술관의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도 이 콘셉트를 기반으로 수동형 전시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놀이형 전시로 기획되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곳이자 환경적으로 험난한 사건을 경험한 '을숙도'를 배경으로 SF소설가, 미술가, 건축가 등이 협업한 전시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사례를 들고자 한다.